



## 김효신의 런던 여행기 런던: 그동안 잘 있었니?

### 50. 버로우 마켓 (Borough Market)

버로우 마켓은 런던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장터'로 도매와 소매를 겸하는 재래시장이다. 역사는 서기 1014년, 혹은 그보다 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며, 원래는 주로 런던 전역에 야채를 공급하는 도매시장 역할을 하다가 현재는 영국과 유럽 전역의 식품을 수입하고 일반에게 판매한다.

커다란 '버로우 마켓' 간판을 올려다보면서 우리는 마켓 안으로 들어갔다. 입구부터 야채, 고기, 해산물, 치즈, 제빵 등 가게들이 즐비했고, 오픈 키친을 구비한 음식가게로부터 식욕을 자극하는 냄새가 마구 풍겨왔다. 입구 근처에서 오리고기 콩피(Confit)를 파는 집을 발견했다. R은 당장 자기는 그것을 먹겠다고 한다. 절인 오리고기를 잘게 찢어 뜨겁게 볶은 것을 붉은 양배추 샐러드 위에 얹어 소스와 콩피 치즈를 얹어 준다. 오리고기 가게 주인 젊은 프랑스 청년이 가무잡잡한 얼굴에 미소를 가득 띠고 R에게 한 접시를 잘 만들어 주었다.

우리는 오리 콩피 접시를 들고 피쉬 앤 칩스 (Fish & Chips) 가게를 찾아 갔다. 마켓 안을 죽 가로질러 야외로 나가면 중세식 벽돌 다리 밑에 '피쉬 키친 (Fish Kitchen)'이라는 가게가 나온다. 사람들이 와글거리는 아주 바쁜 가게였다. 오른쪽 캐쉬어에서 주문을 하는데 먼저 생선 종류를 골라야 한다. 오리지널 대구(Cod)를 골랐다. 가격은 9.95 파운드. 돈을 내고 번호표를 받았다. 생선을 곧 내주는 줄 알고 한참을 기다리는데 안 나온다. 가만히 보니 사람들이 왼쪽에서 연신 생선 튀김을 받아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번호표를 그쪽에서 생선을 튀기는 아저씨에게 주어야 튀김을 내어 주는 것이다. 얼른 번호표를 내미니 2분도 안 되어 갓 튀긴 생선과 감자 튀김을 기다란 박스에 담아 내어 주었다. 생선 튀김은 애기 베개만 하고, 감자 튀김은 엄지 손가락만한데 뜨거운 기름이 줄줄 흐른다. 딱 상상하던 대로다. 말트 식초를 잔뜩 뿌려서 들고 갔다.

우리는 음식을 들고 마켓 곳곳에 있는 돌 벤치 하나에 자

리를 잡았다. 배도 고팠지만 너무 기대가 되어 얼른 먹기 시작했다. 생선 튀김 맛은 환상! 미국에서 먹던 감질나는 생선 튀김이 아니라, 두툼한 덩어리로 튀긴 북구의 대구 흰 살이 뜨겁고, 부드럽고, 고소하고, 바삭거렸다. 큼직한 대구 토막을 껍질째 튀겨 주었는데 그 껍질마저 너무 맛있었다. 생선을 좋아하는 나는 기름을 온 손에 묻히며 영국식 오리지널 피쉬 앤 칩스를 흐뭇한 마음으로 천천히 먹었다. R이 먹고 있는 오리고기 콩피도 콩피 치즈 때문에 짠 편이었지만 아주 맛있었다. 짭짤한 것을 좋아하는 R은 너무 좋다고 맛있게 즐겼다.

한창 먹고 있는데 갑자기 해리가 나타났다! 오리고기 콩피를 한 접시 들고! 알고 보니 R과 버로우 마켓에서 만나자고 미리 약속을 했다고 한다. 도착해서 뭘 먹고 있냐고 문자로 물어 보고는 자기도 오리고기를 사 들고 온 것이다. 반갑게 인사를 하고, 둘만의 시간을 즐겼다가는 마켓을 둘러 보러 나섰다. 건다가 살짝 뒤돌아 보니 둘이서 머리를 맞대고 재잘거리며 맛있게 먹고 있었다.

버로우 마켓에는 없는 것이 없어 보였다. 마켓 건물 안을 둘러 보고 밖에 있는 야외 음식 노점상들도 둘러 보았다. 제일 바쁜 곳은 치즈 가게와 디저트를 파는 가게로 사람들이 케이크, 빵, 캔디, 초콜릿, 등을 줄을 서서 사고 있었다. 외국 음식들도 준비했다. 이디오피아, 인도, 타이, 독일, 멕시코, 페루 음식 등이 있었는데 그 흔한 중국 음식점은 없는 것이 신기했다.

아이들에게 다시 돌아와 다 함께 버로우 마켓 내에 있는 런던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몽마우스 (Monmouth) 커피숍으로 갔다. 주문을 하면 보는 앞에서 커피 빵을 만들며 수제 드립 (drip)을 해 주는 곳이다. 커피를 주문해서 옆에 있는 켈라포 집으로 건너가 체리와 헤이즐넛 켈라포를 먹었다. 버로우 마켓에서의 식사가 그렇게 맛있는 디저트와 함께 끝났다. 이제 테이트 모던 갤러리로 (Tate Modern Gallery) 간다. 해리도 함께 가기로 했다.

더특스피부관리!!  
작은 디테일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 올리브스킨케어

Olive Skin Care  
PREMIUM

**경락 리프팅 마사지**

수분 / 리프팅 / 탄력 관리

여드름    브라이팅    아쿠아필

5회                      10회

**\$300                  \$550**

714.735.8844    7041 Western Ave. #C,  
Buena Park, CA 90621

서울 서초동에서 미용실 운영

## 헤어컷전문

일요일도 오픈합니다

중모술 시술!! Hair Vision 22

714.995.5333    매주 월요일만  
5031 Ball Rd, Cypress, CA 90630    쉼니다  
(Ball Rd & Moody St. 월그린 옆)

가위·칼  
갈아드립니다

213.298.4363

\$3부터~    5031 Ball Rd, Cypress, CA 90630

정직, 성실을 목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법률 자문 서비스

# JL Bridge Legal Consulting    이지연 변호사

상법자문 | 법인 설립 | 이민법 / 비자 | 법령해석 | 상거래계약 | 협상대행

“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문화된 법률 자문을 구하기에 앞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은 아마 예측이 어려운 일명 고무를 수임 비용을 비롯한 부담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편리와 절약을 추구하다가 결과적으로 넘어가기 쉬운 법률적, 제도적, 문화적 측면의 복잡한 문제들은 간혹 장기적 측면에서 실패나 예상치 못한 큰 재정적 손해의 원인이 되고는 합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는 한 기업체나 단체를 설립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해결책 이상으로 각종 문제를 미리 예측하여 그에 따른 비용과 손실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사전 예방책이 중요합니다. JL Bridge가 정액제 형태의 가격으로 어려운 법률의 이해를 쉽게, 차근 차근 성심 성의껏 함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대표 Jeeny Lee, Esq.  
California, Washington DC 변호사

Of Counsel: 이승우 변호사 (K. Freeman Lee, Esq.)  
10년 이상 경력의 강력 이민법 전문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무료상담: (213) 344-9929 | (949) 477-3004  
주소: 17252 Armstrong Ave. Suite E, Irvine, CA 92614  
E-mail: info@jlbridge.com    Website: www.jlbridge.com



**비즈니스의 시작과 법무 진행, 전문 변호사와 함께.  
이민부터 창업까지의 관련 상담, 1 Stop 으로 해결하세요.**